

# 5분 자유발언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위케이션 활성화 선제적 대응 제안-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과 휴가를 동시에 누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이른바 위케이션 활성화를 고성군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인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49,468 명으로 5만이 무너지고 2023년 출생자는 85명, 사망자는 764명으로 한 해 동안 679명이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고성군은 정주민구가 언제 4만 명 이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

니다.

기존 정주인구는 고령화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젊은 청년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위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고성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케이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의 공실화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공유공간 확보입니다. 읍면지역의 주민생활 문화 공간으로 지어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물을 각 부서별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대가면사무소 옆 구예비군 면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이 임차

해 위케이션 공간으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오면 면대는 숙소와 사무실을 함께 리모델링하여 위케이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방치될 뻔한 공공시설물들을 잘 활용하여 고성의 산과 들, 바다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간들을 위케이션 공유 공간으로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5만여 고성군민이 마음을 한데 모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고성을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청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기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지역 명소나 마을 이야기, 맛집과 즐겨 찾는 카페 정보, 청년들을 위한 정주지원 정책, 아름다운 관광지과 문화축제 등의 정보들을 쉽게 전달해주는 ‘로컬 가이드’를 양성하여 유입 청년들이 고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얻게 하고 고성의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 주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고성군은 인근 공항과 기차역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교통편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고성군을 여행하거나 관심 지역을 찾아가 보려고 해도 이동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 차량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차량을 활용하거나 지역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고성군의 아름다운 경관에서 위케이션을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위케이션을 통해 고성군으로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신월리에 유스호스텔이 건립 중이고 하이면 상족암에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숙박과 식사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곳에 위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바다를 품은 고성군의 매력에 빠져 젊은 청년들이 위케이션을 하기 위해 고성군으로 많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한 뒤 이를 재정지원 기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어, 이에 우리 고성군이 선제적으로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위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이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여 대응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남해군은 군 소유 건물을 대기업에 임대해 위케

이선 센터를 운영했고 2년 동안 500여 명의 생활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이제는 정주민구 증가뿐 아니라 생활인구 증가에도 힘을 기울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여 앞으로 더 치열해질 생활인구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